

2022년 현충일 특별 집회 표어

생명나무를 먹는 것, 곧 우리의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교회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야 한다.

창세기 2장 9절에 있는 두 나무,
곧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나무는
두 원칙인 생명의 원칙과 옳고 그름의 원칙을 나타낸다.

주님의 회복은 첫째가는 사랑, 곧 가장 좋은 사랑으로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생명나무이신 주 예수님을 먹는 것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을 건축하기 위한 것,
즉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목표인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기 위한 것이다.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의 재생산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들이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영원한 생명을 체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을 그리스도의 몸의 다른 지체들에게 공급할 수 있다.

서문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길을 취함

리 형제님의 핵심적인 교통

“생명나무는 사람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시고 사람을 기쁘게 하시고 만족시키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창세기 라이프 스타디, 11장, 168-169쪽)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는 주님을 생명나무로 누리는 것이다.”(위트니스 리 전집, 1965년, 2권, 생명나무, 145쪽)

“1943년 5월에 나는 ... 아주 심한 폐결핵에 걸리게 되었다. ... 병중에 이 년 반을 지내면서 내가 보게 된 것은 생명나무이다. 그 이 년 반 동안 나는 주님의 회복과 그분의 일 안에서 결핍된 것이 바로 생명임을 보았다. 모든 종류의 어려움은 생명의 결핍에서 온다. 이것을 보았을 때 나는 극도로 누우치게 되었다. 나는 주님 앞에서 나의 많은 죄들을 시인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그분께 많은 다투심을 받았다. ... 당시에 이 생명나무에 대한 메시지는 난징(南京)에서 많은 이들을 구원했고 많은 이들을 해방했다. 그들은 모두 우리 가운데 있던 형제자매들이었다. 그들은 사 년 전에 상하이(上海)에 있는 교회에서 일어난 사 년 동안의 소요로 인해 여러 해 동안 낙담하고 뒤로 물러나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메시지가 그들의 영을 자유롭게 했고, 이로 인해 그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다. ... 주님께 감사드린다. 생명나무 메시지를 통하여 상하이에 있는 교회도 치료를 받았다. ... 생명나무 메시지는 상하이에 있는 교회를 부흥시키는 기초를 놓아 주었다.”(위트니스 리 전집, 1981년, 2권, 주님의 회복의 역사와 계시, 8장, 170-180쪽)

“생명나무를 먹는 것, 곧 우리의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은 교회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야 한다.”(계 2:7 각주 6, 네 번째 단락)

“악인의 악한 상태는 주님을 먹고 누리려고 주님께 나아오지 않는 것이다. ... 그들은 많은 일을 하지만, 주님을 접촉하고, 주님을 취하며,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맛보며, 주님을 누리려고 나아오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보다 더 악한 것은 없다.”(사 57:20 각주 1)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는 사람에게 생명나무이신 그분 자신을 주시어 사람이 누리도록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누리기 원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위하여 어떤 일도 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누림의 문제라는 것을 보는 것이다. ... 만일 우리의 관념이 바뀌어 이 두 가지 요점을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는 생활을 하는 것이 쉬울 것이다.”(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나무의 이상, 영문판, 5장, 60쪽)

“우리가 실지적으로 하나님을 누리는 길을 가려면 관념이 철저히 전환되어야 한다. ...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는 실재 안으로 들어가려면 이 일에 대하여 철저히 본 것이 있어야 한다. ... 사십 세에 이르렀을 때에야 나는 주님의 돌보심으로 하나님을 누리는 이 길을 알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십여 년 동안 들인 대부분의 시간과 노력이 헛되이 소모된 것에 마음이 매우 괴로웠다. 그 많은 기도와 성경 공부, 그리고 그때 읽었던 영적인 서적들이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 그때가 되어서야 나는 비로소 이전에 일하는 방법이 틀렸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추구의 길도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았다. ... 나 자신이 그런 잘못된 길을 가서 큰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이 나와 똑같은 진철을 밟는 것을 원하지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누리는 이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란다. 내가 정중하게 말하거니와, 여러분은 그런 잘못된 길을 가지 말고, 과거의 여러분의 추구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관념에서 철저한 전환을 가져야 한다. 바꾸어 말해서, 우리는 아주 확실한 이상과 분명한 관점을 가져야 한다.(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나무의 이상, 5장, 91-92쪽)

2022년 5월 27일부터 30일까지
현충일 특별 집회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길을 취함

메시지 1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성취하기 위하여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길을 취함

성경: 창 2:7-9, 계 2:7, 22:14, 요 1:4, 14:6상, 10:10하, 6:35, 57, 63

- I. 창세기 2장에서 우리는 사람 앞에 두 가지 선택, 곧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나무가 있는 것을 본다 — 창 2:7-9.
- A. 두 나무는 이 우주 안에 사람이 자신의 자유 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두 의지, 두 근원, 두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 준다 — 비교 신 30:19-20.
- B. 생명나무는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께서 음식의 형태로 사람에게 생명이 되시는 것을 상징하는데,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 곧 그분의 단체적인 표현을 위하여 그분을 누리고 그분으로 구성되어,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따른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성취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 창 1:26, 사 43:7, 창 2:9, 계 2:7, 22:14, 요 1:4, 14:6상, 10:10하, 6:35, 57, 63, 계 21:10-11, 비교 계 4:3.
1. 하나님의 나무이자 하나님-나무인 생명나무는 우주의 중심이다.
 2. 구약은 생명나무로 시작하고(창 2:9), 신약은 생명나무로 끝난다(계 22:2, 14).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이시라는 사상은 신성한 계시 전체를 관통한다.
 3. 하나님께서 사람을 생명나무 앞에 두셨다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유기적으로 먹고 신진대사적으로 동화함으로써 사람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원하셨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사람의 존재를 조성하는 조성 성분이 되실 수 있으시다 — 요 6:57, 63, 램 15:16, 마 4:4.
- C. 선과 악의 지식나무는 사람에게 죽음의 근원이 되는 사탄을 상징한다 — 히 2:14.
1. 선과 악의 지식나무는 또한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을 상징한다. 하나님 자신이 아닌 모든 것은 선한 것들과 심지어 성경적인 것들과 종교적인 것들까지도 포함되는데, 간교한 자 사탄은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여 사람에게 죽음을 가져다준다 — 요 5:39-40, 고후 3:6하.
 2. 선과 악은 두 그루의 나무로 각각 상징되지 않고 한 나무, 곧 둘째 나무로 상징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외의 어떤 선을 추구하는 것은 사탄에게 속한 것이다.
 3. 진정한 선은 하나님 자신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얻는 것은 진정한 선을 얻는 것과 동일하다 — 마 19:17상, 막 10:17-18, 시 16:2.
- D. 생명나무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존하게 하지만(요 15:5), 지식나무는 사람이 하나님을 거스르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독립하게 한다(비교 창 3:5).
1. 먹는 것은 의존을 가리킨다. 생명나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식이심을 상징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지식나무는 독립을 가리킨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람의 첫 번째 죄이자 가장 큰 죄는 독립하는 것이다.
- E. 두 나무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여 요한계시록에서 끝나는 두 노선 또는 두 길 곧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을 가져온다.

1. 죽음은 지식나무로 시작하여(창 2:17) 불 못으로 끝난다(계 20:10, 14).
2. 생명은 생명나무로 시작하여 생명수의 성인 새 예루살렘으로 끝난다 — 계 22:1-2.

II. 우리는 생명의 성장에 의해 건축되는, 생명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해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누림으로써, 반드시 생명을 유지해 주는 생명의 길 곧 생명의 노선에 머물러야 한다 — 요 10:10하, 계 22:1-2, 엡 4:16, 2:21-22, 골 2:19.

- A. 우리는 옳고 그름의 원칙에 따라서가 아니라 생명의 원칙에 따라서 살고 봉사함으로 생명의 길에 머문다.
1. 우리는 옳고 그름에 따라서가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영 안에 있는 생명의 내적 감각 곧 생명의 인도에 따라서 살고 행동해야 한다 — 롬 8:6, 고후 2:13.
 2.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표준은 우리 안에 있는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임재이다. 그것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이 어떤 것에 동의하는가 동의하지 않는가의 문제이다 — 마 17:3, 5, 8, 비교 말 2:15-16.
- B. 우리는 주님을 극도로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 그분을 따라 달려가게 함으로 생명의 길에 머문다 — 막 12:30, 아 1:4상.
1.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려면, 우리는 반드시 항상 그분께 “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해야 한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향해 불타는 사랑을 가지고 모든 일에 그분께 으뜸의 위치를 드린다면, 그분의 온 존재를 누릴 것이다 — 계 2:4-5, 7.
 2.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려면, 우리는 반드시 사람들을 그분께 약혼시켜 주 예수님의 소중한 인격에 대한 진정한 감상과 사랑과 누림 안으로 이끌어야 한다 — 고후 11:2-3.
- C. 우리는 말씀을 기도로 읽고 말씀을 읊조림으로 예수님을 먹고, 우리의 믿음의 영을 사용하여 그 영인 말씀을 다른 사람들 안으로 공급함으로 생명의 길에 머문다 — 요 6:57, 63, 롬 15:16, 시 119:15, 마 4:4, 24:45, 고전 2:4-5, 13.
1. 우리는 매일 새로운 출발을 갖도록 반드시 아침 일찍 말씀 안에서 그분을 누려야 하고, 그분의 말씀을 주의 깊게 깊이 숙고하며 받아들여야 한다 — 시 119:15, 147-148, 비교 레 11:3.
 2.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반드시 매일 온갖 종류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말해야 하며 (행 5:42, 8:4, 딤후 4:2), 어느 집회에서나 말하는 습관을 세우기를 필사적으로 힘써야 한다 (고전 14:26, 4-5, 12, 31).
- D. 우리는 신성한 역량을 가진 생명의 영의 법이신 삼일 하나님을 누림으로 생명의 길에 머문다 — 롬 8:2, 롬 32:39.
1. 두 나무가 있는 에덴동산에서 우리는 생명을 보고 선과 악을 본다. 영 안에 생명의 영의 법이 있고, 타고난 독립적인 생각 안에 선의 법이 있으며, 육체 안에 악의 법이 있는 우리는 에덴동산의 축소판이다 — 롬 7:23, 8:2, 16.
 2. 우리는 반드시 영을 따라 행하고 우리의 생각을 영에 둬므로 생명의 영의 법의 ‘스위치를 켜서’, 생명이신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 부분으로 된 존재에 분배되시도록 해야 한다 — 롬 8:2, 4, 6, 10-11.
- E. 우리는 부활 안에 삶으로, 곧 부활 생명의 나무인 금등잔대로 상징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실재 안에 삶으로 생명의 길에 머문다. 이것은 우리가 생명의 성인 새 예루살렘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니고 그분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 엡 1:22-23, 출 25:31-40, 계 1:11-12, 21:10-11.

III. 우리가 이기는 이들이 되는 유일한 길은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먹고 누리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생명 안에서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승리를 전시하는 사내아이가 될 수 있고, 그리스도를 만족시키는 신부가 될 수 있다 — 계 2:7, 17, 3:20-21, 12:5-12, 19:7-9, 22:2, 14.

메시지 2

두 나무와 생활의 두 원칙

성경: 창 2:9, 히 4:12, 고전 2:14-15, 롬 8:4, 6, 엡 4:18-19, 고후 11:3

I. 창세기 2장 9절에 나오는 두 나무, 곧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나무는 생활의 두 원칙을 나타낸다.

- A. 이 두 나무는 그리스도인이 서로 다른 두 원칙, 곧 옳고 그름의 원칙이나 생명의 원칙에 따라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 고전 8:1.
- B.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옳고 그름의 원칙, 곧 선과 악의 원칙에 속한 문제가 아니라 생명에 속한 문제이다 — 요일 5:11-13, 20.
- C. 우리는 주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새 생명을 얻었을 때, 생활의 또 다른 원칙 곧 생명의 원칙을 얻었다. 우리가 이 원칙을 알지 못한다면, 생명의 원칙을 체쳐 두고 옳고 그름의 원칙을 따를 것이다.
- D.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의 옳고 그름을 묻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마다 그 일이 우리 안에 있는 생명과 부합되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이다 — 롬 8:6, 엡 4:18-19.

II.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속생명에 근거한 것이지 외적인 옳고 그름의 표준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생활의 원칙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이다.

- A. 우리가 옳고 그름의 원칙에 따라 산다면, 세상 사람들과 같다 — 엡 4:17.
- B. 옳고 그름은 외적인 표준이 아닌 속생명에 의해 결정된다.
- C. 우리는 악한 모든 것을 피해야 할 뿐 아니라, 단지 선하기만 한 모든 것도 피해야 한다.
 - 1.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생명에서 나온 것만을 할 수 있다. 어떤 것들은 악하고, 어떤 것들은 선하며, 어떤 것들은 생명에 속한다 — 요 1:4, 10:10, 요일 2:25, 5:13.
 - 2. 창세기 2장 9절에서 '선과 악'은 하나의 길로서 함께 두어지는 반면에, '생명'은 또 다른 길이다.
 - 3. 선이라는 표준보다 더 높은 표준이 있다. 그것은 생명이라는 표준이다 — 요 11:25, 요일 5:11-12.
 - 4.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표준은 악한 것들을 처리할 뿐 아니라 옳고 선한 것들도 처리한다.
 - 5. 많은 것들이 인간적인 표준에 따르면 옳지만, 신성한 표준은 그것들에 신성한 생명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르다고 판단한다.
- D.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속생명에 근거한다 — 롬 8:2, 6, 10-11.
 - 1. 어떤 그리스도인도 생명을 떠나서는 어느 것도 결정하지 말아야 한다 — 요일 5:13.
 - 2. 무엇이든 속생명을 증가시키는 것은 옳은 것이고, 무엇이든 속생명을 감소시키는 것은 그른 것이다.
 - 3. 우리의 길은 옳고 그름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이다. 이 두 원칙의 차이는 매우 크며, 둘 사이의 대조는 극명하다.
 - 4. 우리가 반드시 질문해야 할 한 가지는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이 올라가는가 아니면 내려가는가이다. 이것이 우리가 선택하는 길을 결정해야 한다.
 - 5.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성한 생명을 만족시킬 것을 요구하신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만족시키는 방식으로 일들을 행해야 한다 — 요 1:4, 3:15.
 - 6.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는 단지 우리가 범한 죄들에 대해서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자주 우리가 행한 선한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한다.
 - 7. 우리의 생활의 원칙은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 생명에 속한 것이고 어떤 것이 죽음에 속한 것인지 결정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 롬 8:6, 요일 3:14.

III. 우리가 생명의 원칙에 따라 생활하고자 한다면 영과 혼을 분별하고 영을 알아야 한다 — 히 4:12, 고전 2:14-15.

- A. 그 영이신 주님은 우리의 영 안에서 사시고 거하시고 일하시고 움직이시고 활동하시며, 우리는 그 분과 한 영이다 — 고후 3:17, 롬 8:16, 고전 6:17.
1. 우리가 실지적인 방식으로 주님을 알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분을 체험하기를 갈망한다면, 우리의 영을 분별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 고전 2:14-15.
 2. 우리가 우리 사람의 영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움직임을 이해할 수 없고 주님을 따를 수도 없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영으로서 우리의 영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이다 — 요일 2:27, 딤후 4:22.
- B. 우리는 우리의 영과 그 밖의 다른 속부분들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 — 시 51:6, 겔 36:26, 벧전 3:4.
- C. 옳은 것이든 그른 것이든 우리의 혼 안에서 하는 모든 것은 옛사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혼생명 곧 우리의 자아를 부인해야 한다 — 마 16:24-26.
- D. 우리가 우리의 영을 따를 때, 우리는 주님 자신을 따르는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영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 딤후 4:22, 고전 6:17.

IV. 생명의 원칙에 따라 살려면, 우리는 내적인 생명의 감각을 따라야 한다 — 롬 8:6, 엡 4:18-19, 사 40:31.

- A. 생명의 감각은 주관적이고 개인적이며 실지적이다.
1. 부정적인 방면에서 생명의 감각은 죽음의 느낌이다 — 롬 8:6상.
 2. 긍정적인 방면에서 생명의 감각은 힘과 만족과 안식과 밝음과 위로의 의식을 포함하는, 생명과 평안의 느낌이다 — 롬 8:6하.
- B. 생명의 감각의 근원은 신성한 생명(엡 4:18-19), 생명의 법(롬 8:2), 성령(롬 8:11, 요일 2:27),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요 15:4-5),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는 하나님(빌 2:13)이다.
- C. 생명의 감각의 기능은 우리가 타고난 생명 안에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신성한 생명 안에서 살고 있는지, 또한 우리가 육체 안에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 영 안에서 살고 있는지를 알도록 하는 것이다 — 고전 2:14-15, 롬 8:8-9, 갈 5:16-17.
- D. 믿는 이의 생명의 성장은 그가 내적인 생명의 감각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달려 있다 — 엡 4:15, 골 2:19, 고전 3:6-7.
- E.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생명의 감각 안으로 들어가, 날마다 생명의 감각의 통제하고 안내하고 지시하는 요소 아래서 살아야 한다 — 롬 8:6, 엡 4:18-19, 요일 2:27.
- F. 우리가 더 많이 영을 따라 행하고 생명의 감각을 따를수록, 더욱더 생명의 원칙에 따라 살게 될 것이다 — 롬 8:4, 6.

V. 우리가 생명의 원칙에 따라 산다면, 옳고 그름에 따라서가 아니라 생명과 죽음에 따라서 일들을 분별할 것이다 — 고후 11:3.

- A. 요한복음은 생명나무가 선과 악의 지식나무와 대립된다는 사실과, 우리가 선이나 악을 주의하지 말고 생명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 요 4:10-14, 20-21, 23-24, 8:3-9, 9:1-3, 11:20-27.
- B. 어떤 것을 분별하는 최상의 길, 곧 분별의 비결은 생명이나 죽음이나에 따라 분별하는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모든 것을 생명과 죽음에 의해 분별하고 구별하며, 우리의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을 빼앗는 모든 말을 거절하고, 항상 우리의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 안에서 우리를 강하게 하는 주님의 진정한 사역을 받아들이기를 배워야 한다 — 롬 8:6, 고후 11:3.

메시지 3

첫째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생명나무이신 주님을 누리며, 예수님의 증거인 금등잔대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목표인 새 예루살렘을 건축함

성경: 계 2:1-7, 엡 6:24, 딤후 1:15, 고후 11:2-3, 요 14:21, 23, 21:15-17

- I.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 생명나무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한 토막의 목재인 나무로 암시되어 있음—벧전 2:24) 부활하신(하나님의 생명으로 암시되어 있음—요 11:25)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리스도는 오늘날 교회 안에 계시며, 교회는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것이다. 이 새 예루살렘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구축하신 모든 백성의 자양분과 누림을 위한 생명나무가 되실 것이다(계 22:2, 14, 비교 출 15:25-26).
- II. 에베소에 있는 교회를 포함하여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은 사도 바울의 약혼시키는 사역을 버리고 떠났다(딤후 1:15, 고후 11:2-3). 그리하여 우리는 약 이십육 년 후에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썼을 때, 그들이 그들의 첫째가는 사랑을 버렸고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누림을 잃어버린 것을 본다(계 2:4-5, 7).
 - A. 진정한 신약의 사역은 항상 우리를 분발시켜 첫째가는 사랑으로 주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며, 우리를 강화하여 단순하게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먹고 누림으로써 생명 공급을 얻게 한다 — 고후 11:2-3, 3:3-6.
 - B. 주님을 첫째가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은 모든 일에서 그분께 으뜸의 위치 곧 첫째 위치를 드리며, 그분의 사랑에 강권되어 우리 생활에서 그분을 모든 것으로 여기고 모든 것으로 취하는 것이다 — 계 2:4-5, 골 1:18하, 고후 5:14-15, 막 12:30, 시 73:25-26.
 - C.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보낸 서신의 결론의 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패함 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란다는 축복이었다(엡 6:24). 에베소서에서는 풍성한 느낌이 담겨 있는 ‘사랑 안에서’라는 구를 반복해서 사용한다(엡 1:4, 3:17, 4:2, 15-16, 5:2).
 - D. 에베소서의 목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내적인 실질인 사랑 안으로 이끌려 사랑이신 하나님을 누리고 또 달콤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임재를 누림으로써, 그리스도께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 엡 1:15, 2:4, 3:19, 5:2, 25, 6:23, 비교 요일 4:16-19.
 - E. 에베소에 있는 교회는 주님을 사랑하는 문제에서 실패했다. 그러한 실패는 역대로 교회가 실패한 주된 이유가 되었다 — 마 24:12, 막 12:30-31, 비교 단 7:25.
 - F.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에 기록된, 주님께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게 보내신 서신에는 네 가지 주된 중점이 있다. 이 네 가지 주된 중점은 영어 알파벳 ‘엘(1)’로 시작하는 네 단어 곧 사랑(love), 생명(life), 빛(light), 등잔대(lampstand)이다.
 1. 우리는 주 예수님께 모든 길과 모든 일에서 으뜸의 위치를 드림으로써 첫째가는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생명나무이신 그분을 누릴 것이고, 이 생명은 생명의 빛이 될 것이다 — 요 8:12, 엡 5:8-9, 13.
 2. 그때 우리는 금등잔대로서 곧 예수님의 증거로서 빛을 비출 것이다. 그러지 않는다면 등잔대는 우리에게서 옮겨질 것이다 — 계 1:9-12, 20.
 - a. 금등잔대는 삼일 하나님을 상징한다. 실질이신 아버지는 아들 안에 체현되시고, 체현이신 아들은 그 영을 통해 표현되시며, 그 영은 교회들로서 완전히 실재화되시고 표현되시며, 교회들은 예수님의 증거이다 — 출 25:31-40, 스후 4:2-10, 계 1:10-12.

b. 신성한 사상에서, 금등잔대는 사실상 꽃받침과 아몬드꽃이 있는 살아 있고 자라는 나무이다. 따라서 등잔대는 그리스도 안에 체현되신 삼일 하나님을 살아 있는 부활의 금나무로 묘사한다. 이 나무는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로부터 자라고, 가지를 내며, 봉우리를 맺고, 꽃을 피워 빛의 열매를 맺는다. 이 빛의 열매(그 영의 열매)는 본성에 있어서 선하고, 질차에 있어서 의로우며, 표현에 있어서 참되다.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매일의 행함에서 실재로서 표현되실 수 있다 — 출 25:31, 35, 엡 5:8-9, 갈 5:22-23, 요 12:36.

G. 생명나무를 먹는 것, 곧 우리의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은 교회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야 한다.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는 '먹기 좋은'(창 2:9) 분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누림을 위하여 그분을 먹을 수 있고, 하나님의 표현을 위하여 그분으로 조성될 수 있다(창 1:26, 요 6:57, 63).

1. 교회생활의 내용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에 달려 있다. 우리가 그분을 더 많이 누릴수록 교회생활의 내용은 더욱더 풍성해질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누리려면, 첫째가는 사랑으로 그분을 사랑해야 한다.
2. 우리가 주님을 향한 첫째가는 사랑을 버린다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을 놓칠 것이고, 예수님의 증거를 상실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등잔대가 우리에게서 옮겨질 것이다 — 계 2:1-7.
3. 이 세 가지, 즉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주님을 누리는 것과 주님의 증거가 되는 것은 함께한다.

III. 주님의 회복은 첫째가는 사랑, 곧 가장 좋은 사랑으로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생명나무이신 주 예수님을 먹는 것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을 건축하기 위한 것, 즉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목표인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기 위한 것이다 — 엡 4:15-16, 계 22:14.

A.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려면, 우리는 반드시 항상 그분께 “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씀드려야 한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향해 불타는 사랑을 가지고 모든 일에서 그분께 첫째 위치를 드린다면, 그분의 온 존재를 누릴 것이다 — 계 2:4-5, 7, 고전 2:9.

B. 주님을 믿는 것은 생명이신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생명이신 그분을 누리는 것, 즉 우리가 받아들인 바로 그 인격을 누리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사랑은 이러한 놀라운 믿음에서 비롯되며,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 계신 삼일 하나님의 모든 풍성을 살아 낼 수 있게 한다 — 벧후 1:1, 히 12:1-2상, 고후 4:13, 갈 5:6, 요 1:12-13, 21:15-17, 골 3:4.

C.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을 때 받아들인 바로 그 생명은 한 인격이며, 이 인격을 적용하고 누리는 유일한 길은 첫째가는 사랑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의 생명이신 주 예수님께서 한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순간 그리고 날마다 그분을 새롭게 접촉하여 그분의 현재의 임재를 누려야 한다 — 요 11:25, 14:5-6, 딤편 1:14, 고후 5:14-15, 계 2:4-7, 골 1:18하, 롬 6:4, 7:6.

D.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여러분 자신을 드리라. 다른 어떤 길도 그렇게 유력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어떤 방법도 그렇게 안전하고 부요하고 누림이 충만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그분을 사랑하라. 그 밖의 어떤 것도 주의하지 말라.” — 아가서에 묘사된 생명과 건축, 41쪽.

E.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그분은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며, 그분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처를 정하실 것이다(요 14:21, 23).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기도해야 한다. “주님, 저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 주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저를 강권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향하여 살게 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항상 당신을 사랑하도록 지켜 주십시오.”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께 “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 저를 당신의 사랑 안에 지켜 주십시오! 당신 자신으로 저를 매혹해 주십시오! 저를 항상 당신의 사랑스러운 현재의 임재 안에 지켜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려야 한다.

- F. 주님을 사랑할수록 우리는 주님과 교통 안에서 그분의 임재를 더 갖게 될 것이다. 우리가 내재적인 방식으로 주님의 회복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주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회복에 관해서 끝난 것이다 — 아 1:1-4, 고전 2:9, 16:22.
- G. 이것에 근거하여 우리는 이렇게 노래하고 기도할 수 있다. “내 주를 진정 사랑하지만 / 내 사랑 없으니 / 모든 사랑은 주의 것이라 / 사랑으로 사네 / 아무것 아닌 나를 비워서 / 주님 안에서 삼킨바 되리”(영한 동변 찬송가 546장 1절, 찬송가 1059장 1절). “다른 것을 사랑한 맘 / 결코 안식 못하리 / 주께 내 맘 드리고서 / 주만 사랑하리라”(영한 동변 찬송가 547장 1절, 내 마음의 노래 214장 1절).

메시지 4

그리스도 안으로 접붙여짐으로 생명나무의 일부가 됨

성경: 창 2:9, 고전 6:17, 롬 11:17, 24, 요 15:1, 4-5

I.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기를 갈망하시는 관계가 그분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임을 계시한다 — 고전 6:17.

- A. 우리는 성경에 나아올 때마다 한 가지 원칙, 곧 하나님께서 그분께 선택받은 백성과 하나 되기를 갈망하신다는 원칙을 실행해야 한다 — 요 14:20.
- B. 하나님의 주된 목적은 그분 자신을 사람과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람을 그분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다 — 엡 4:4-6.
- C. 하나님은 신성한 생명과 사람의 생명이 함께 결합되어 한 생명이 되기를 갈망하신다.
- D.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 노선은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하나님 이 둘을 한 본성을 가지고 한 생명에 의해 한 생활을 하는 한 실체가 되게 하는 것이다 — 계 22:17.
- E. 그리스도는 육체 되심 안에서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이끄셨고, 부활 안에서 사람을 하나님 안으로 이끄셨다. 이로써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을 하나로 연합하는 일을 성취하셨다 — 롬 8:3, 1:3-4.
 - 1.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신다. 그리스도와 우리는 한 인격이 되었다 — 고전 12:12.
 - 2. 그리스도는 우리가 되셨고 우리는 그분이 되었다 — 히 2:14, 11.

II.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기를 갈망하시는 관계는 그분과 사람이 함께 접붙여짐으로 유기적인 연결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다 — 롬 6:3-5, 요 15:4-5.

- A. 접붙여진 생명은 교환된 생명이 아니다. 접붙여진 생명은 사람의 생명과 신성한 생명의 연합이다 — 고전 6:17.
- B. 접붙임으로 비슷한 두 생명이 결합되고, 그 후에는 유기적으로 함께 자란다 — 롬 11:24.
 - 1. 우리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에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신성한 생명과 결합될 수 있다 — 창 1:26.
 - 2. 우리 사람의 생명은 신성한 생명과 닮았다. 그러므로 신성한 생명과 사람의 생명은 함께 접붙여질 수 있고 함께 살 수 있다.
- C.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접붙여지기 위해서는 그분께서 육체 되심, 십자가에 못 박히심, 부활의 과정들을 통과하시어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셔야 했다 — 요 1:14, 고전 2:2, 15:45.
- D. 우리는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접붙여졌으며, 이 접붙임이 우리를 그분과 하나 되게 하였다 — 롬 11:24.
 - 1. 그리스도와 믿는 이들은 한 나무이다.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들이다 — 요 15:1, 5상, 4상.
 - 2.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과 본성과 인격이 되신다 — 골 3:4, 10-11, 엡 3:17상.
- E. 그리스도 안으로 접붙여진 거듭난 이들로서 우리는 접붙여진 생명, 곧 양편이 결합되어 유기적으로 자라는 생명을 살아야 한다.
 - 1.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접붙여졌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에 의해 살아서는 안 된다. 그보다 우리는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도록 허락해 드려야 한다 — 갈 2:20.
 - 2.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육체나 타고난 존재에 의해 살지 말아야 한다. 그보다 우리는 연합된 영, 즉 거듭난 사람의 영과 연합되신 신성한 영에 의해 접붙여진 생명을 살아야 한다 — 고전 6:17, 롬 8:4.

- F. 접붙여진 생명 안에서 사람의 생명은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생명에 의해 강화되고 높아지고 풍성하게 된다 — 갈 2:20, 4:19, 엡 3:16-17상.
1. 접붙여진 생명 안에서 가지는 그 본질적인 특성을 동일하게 보유하고 있지만, 더 높은 생명 안으로 접붙여짐으로써 강화되고 높아지고 변화된다 — 요 15:4-5, 롬 11:17.
 2. 접붙여진 생명 안에서 신성한 생명은 우리 안에서 운행하여 부정적인 요소들을 배출시킨다.
 - a. 신성한 생명은 점진적인 방식으로 운행하여 타고난 모든 것을 제거한다.
 - b. 신성한 생명은 우리의 결합과 연합함을 삼킨다.
 - c. 우리의 기질의 부정적인 요소가 죽음을 당하고 나면, 주님은 우리의 기질을 버리시는 대신 그것을 높이 올리시고 사용하신다.
 3. 접붙여진 생명 안에서 신성한 생명은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것을 부활시키며, 우리의 기능을 높인다 — 요 11:25, 엡 4:23.
 - a. 신성한 생명은 부정적인 것들을 배출시키는 동안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것을 부활시키는 일을 한다.
 - b.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의 원래 기능들, 곧 창조될 때에 받은 기능들은 복원되고 강화되고 높아진다 — 갈 2:20.
 4. 접붙여진 생명 안에서 신성한 생명은 그리스도의 풍성을 우리의 속부분들에 공급하고 우리의 전 존재를 적신다 — 롬 12:2, 8:29-30.

III.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의 체현이시고, 그리스도 안으로 접붙여진 우리는 유기적으로 그분께 연결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나무의 일부이다 — 골 2:9, 요 15:1, 4-5.

- A. 우리는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먹을 뿐 아니라, 그분과 연결되며 그분의 일부이다 — 고전 6:17.
- B. 생명나무는 신성한 생명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기 위한 것이다. 가지들인 우리가 포도나무 안에 거할 때, 생명나무로부터 생명의 분배를 받고 생명나무의 일부로서 산다 — 요 15:5, 롬 8:2, 10, 6, 11, 비교 빌 4:13.
- C.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는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는 신성한 경륜을 위하신다. 포도나무의 가지들로서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고 있고,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
- D. 우리가 포도나무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으로 하나님의 분배, 곧 생명나무로부터 가지들 안으로 생명의 분배가 이루어진다. 이 분배가 우리를 하나님-사람들이 되게 한다 — 롬 8:10, 6, 11.
- E.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그분을 우리의 거처로 삼는 것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가장 높고도 완전한 체험이다. 그리스도 안에 거주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그분을 우리의 모든 것으로 삼는 것이다 — 시 90:1, 91:1, 9.
- F. 우리가 생명나무의 일부로서 산다면, 선과 악이 아닌 생명을 주의할 것이고, 옳고 그름에 따라서가 아니라 생명과 죽음에 따라서 일들을 분별할 것이다 — 창 2:9, 16-17, 고후 11:3.

메시지 5

이기는 이가 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는 비결 —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먹고 누리는 길을 취함

성경: 창 2:9, 계 2:7, 요 6:57, 63, 렘 15:16, 시 119:15, 겔 3:1-4

- I. 이기는 이가 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는 비결은 우리가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먹고 누리는 길을 취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가 그분을 위하여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분의 유일한 갈망은 우리의 누림을 위하여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음식으로 주시는 것이다. 오직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길을 취한 이들만이 그들의 생활과 일이 새 예루살렘 안에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 창 2:9, 계 2:7.
- II. 우리는 온갖 기도로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읊조림으로 영과 생명에 속한 주님의 말씀을 먹는 것을 통하여 생명을 주시는 그 영이신 그분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의 누림을 위한 영적 양식이신 주 예수님을 먹을 수 있다 — 요 6:57, 63, 렘 15:16과 각주 1, 엡 6:17-18, 시 119:15과 각주 1, 마 4:4, 시 119:103.
- A. 우리는 영과 생명에 속한 주님의 말씀을 먹음으로써 주 예수님을 먹을 때, 그분으로 ‘말미암아 (because of)’ 산다(요 6:57-63). 즉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해서(by)’가 아니라, 우리에게 힘을 주는 요소이시자 공급을 주는 요인이 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because of)’ 산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그리스도를 산다(갈 2:20, 빌 1:19-21상).
- B. 주 예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그분을 먹을 때, 우리는 합당한 영적 소화력을 가져야 한다 — 겔 3:1-4, 렘 15:16, 계 10:9-10.
1. 우리에게 좋은 소화력이 있다면, 음식이 우리의 내적 존재의 각 부분 안으로 도달할 수 있는 통로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먹음으로써 소화하고, 소화함으로써 동화한다. 또한 동화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풍성의 실질적인 자양분을 우리 존재 안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 엡 3:8, 16-17상.
 2. 소화 불량이란 영적인 음식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내적 부분들 안으로 도달하실 길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음식이 우리의 내적 부분들 안에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없을 때, 우리는 소화 불량에 걸릴 것이다 — 히 3:12, 15, 4:2.
 3. 우리는 우리의 전 존재와 함께 우리의 모든 내적 부분들을 주님께 열어 두어야 한다. 그럴 때 영적인 음식이 우리 안에서 통로를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합당한 소화와 동화를 하게 될 것이고, 영적인 자양분이신 그리스도를 흡수할 것이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표현을 위한 우리의 조성 성분이 되실 것이다 — 엡 3:16-17상, 골 3:4, 10-11.
- III. 우리는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들을 만족시키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행함으로써, 또한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사람의 생활을 하여 이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함으로써 그분을 먹을 수 있다 — 마 24:45-47, 빌 1:19-21상.
- A. “나에게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먹을 음식이 있습니다. ...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 요 4:32, 34.
- B.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내가 완성하여, 이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였습니까.”(요 17:4)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다(비교 골 1:9-11).
- C. 주님은 그분의 인간 생활에서 버터(가장 풍성한 은혜)와 꿀(가장 달콤한 사랑)을 드셨다. 이것들은 주님께 힘을 주어 항상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시게 했다 — 사 7:14-15, 1901년판 미국 표준역 성경.

- D.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대로’ 그리스도를 배우는 사람들이다.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는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일생의 실지 상태를 가리킨다. 예수님은 그분의 일생에서 이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시어 그분의 믿는 이들을 위한 모형을 세우셨다 — 엡 4:20-21.
1. 예수님의 생활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삶이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생활 안에 계셨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셨다. 예수님은 부활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는데, 이것은 그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어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위한 것이었다. 우리는 타고난 생명에 의해 그분께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활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그분(골 3:4, 뵤전 2:21)에 의해 그분의 본을 따라 그분께 배운다(마 11:29).
 2. 주 예수님은 결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으셨고(요 5:19), 자신의 일을 하지 않으셨으며(4:34, 17:4), 자신의 말을 하지 않으셨고(14:10, 24), 자신의 뜻을 행하지 않으셨으며(5:30),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셨다(7:18).
 3.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은 다만 그리스도라는 틀 안으로 넣어져 형태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즉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형상이 되는 것이다. 내주하시는 영 곧 생명의 영의 법이신 그리스도 자신께서 그분의 생명의 모든 풍성을 가지고 우리 안에 그분 자신을 재생산하신다 — 롬 8:2, 28-29.
- E. 이사야서 43장 7절은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이들을 / 내가 창조하고 지었으며 심지어 내 영광을 위해 만든 이들을.”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봉사는 그분의 영광을 표현하는 것이다 — 고후 3:18, 롬 9:23.
- F. 고린도전서 6장 20절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여러분을 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라고 말한다. 이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요일 4:13)께서 그분의 성전인 우리 몸(고전 6:19)을 점유하시고 적시시며 그분 자신을 우리의 몸을 통해 표현하시도록 허락해 드리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여러분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라고 말한다.

IV. 우리는 합당한 사람들을 접촉함으로써 그분을 먹을 수 있다 — 레 11:1-3, 9, 13, 21.

- A. 먹는 것은 우리 밖에 있는 어떤 것을 접촉하고 그것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그것은 결국 우리의 내적 조성이 된다. 레위기 11장에서 모든 동물은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상징하며, 먹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을 접촉하는 것을 상징한다(행 10:9하-14, 27-29).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거룩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종류의 사람을 접촉할지를 주의해야 한다(레 11:46-47, 고전 15:33, 고후 6:14-18, 딤후 2:22).
- B. 굽이 갈라져 있고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레 11:3, 비고 레 11:4-8, 26-28)은 분별력 있게 행동하며(빌 1:9-10)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숙고하며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상징한다(시 119:15).
- C.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수중 동물은 세상에서 자유롭게 움직이고 활동하는 동시에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을 상징한다(지느러미는 물고기가 물속에서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도록 돕고, 비늘은 물고기를 보호하고 바다에서 사는 물고기가 소금에 절지 않도록 지켜 줌) — 레 11:9.
- D. 날 수 있는 날개가 있고 생명의 씨를 음식으로 먹는 새들은 세상과 멀리 떨어져 있으며 세상을 초월한 생명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생명에 속한 것들을 그들의 생명 공급으로 삼는 사람들을 상징한다 — 레 11:13.
- E. 날개가 있고 또 땅에서 뿔 수 있도록 그 발 뒤에 다리가 있는 곤충은 세상을 초월한 생명 안에서 살고 움직일 수 있으며, 세상에서 그들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을 상징한다 — 레 11:21-22.

V. 우리는 하나라는 터 위에서 갖는 집회들 안에서 그분을 잔치로 누림으로써 그분을 먹을 수 있다.

- A. 이스라엘 자손은 좋은 땅의 풍성한 소산을 두 가지 방식으로 누릴 수 있었다. 일반적이고도 개인적인 방식의 누림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사람과도 그것을 일반적인 몫으로 누리는 것이었다(신 12:15). 특별하고도 단체적인 방식의 누림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정해진 명절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유일한 장소에서 최상의 몫인 첫 열매와 첫 새끼를 누리는 것이었다(신 12:5-7, 17-18).
- B. 마찬가지로 신약의 믿는 이들도 두 방면으로 그리스도를 누린다. 한 방면은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를 일반적이며 개인적인 방식으로 누리는 것이고, 다른 한 방면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장소인 유일한 하나의 터 위에 있는 합당한 교회생활의 집회들 가운데에서 최상의 몫이신 그리스도를 특별하며 단체적인 방식으로 누리는 것이다.

VI.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의도는 생명나무이신 그분 자신을 사람에게 주어 사람이 누리게 하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과 우리가 그분을 위하여 무언가를 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문제라는 것을 보는 것이다. 우리의 관념이 바뀌어 이 두 중점을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는 생활을 하기가 쉬울 것이다.

메시지 6

생명의 사역을 위하여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의 재생산이 됨

성경: 요 1:4, 12:24, 15:1, 4-5, 요일 5:16, 고후 4:12

I.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우리는 생명나무를 먹는 사람들일 뿐 아니라 이 나무의 가지들이기도 하며, 결국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의 재생산인 작은 생명나무가 될 수 있다 — 벰전 2:21, 요 1:4, 12:24, 15:1, 4-5.

A. 하나님의 의도는 그리스도 안의 모든 믿는 이들이 하나님-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재생산이 되는 것이다 — 요 12:24, 롬 8:29.

1. 그리스도의 재생산이 되려면, 우리가 우리의 영 안에서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에게서 다시 태어나고, 그런 다음 우리의 혼 안에서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점차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요구된다 — 요 3:6, 고후 3:18.

2. 우리는 신성한 생명의 풍성이 우리 안으로 분배되고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는 것과 관련된 하나의 과정에 의해 그리스도의 재생산이 된다 — 엡 3:8, 골 3:4, 10-11.

3. 우리의 본이신 그리스도의 재생산이 되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사시고 우리 속에 형상을 이루시며 우리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는 분으로 체험해야 한다 — 갈 2:20, 4:19, 엡 3:16-17상.

4. 그리스도의 재생산이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분의 영의 넘치는 공급에 의해 그리스도를 살 것이다 — 빌 1:19, 21.

B. 창세기 2장 9절에서 생명나무는 유일한 것이었지만, 생명나무가 우리 안에 심어지고 우리 안에 자라나 우리를 작은 생명나무가 되게 하고 있다.

II.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의 재생산으로서 우리는 생명의 사역을 갖고 있다 — 요일 5:16, 고후 4:12.

A.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들이자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영원한 생명을 체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을 그리스도의 몸의 다른 지체들에게 공급할 수 있다 — 요일 5:11-16.

B. 생명을 공급하는 것은 생명을 나누어 주는 것이다. 우리가 넘치는 여분의 생명을 갖고 있을 때, 이렇게 비축된 것으로 다른 이들을 공급할 수 있다 — 요일 1:1-2, 2:25, 5:11-13, 16.

C. 교회 안의 봉사는 생명을 공급하는 봉사, 곧 다른 이들에게 신성한 생명을 공급하는 봉사이다 — 고후 4:12.

1. 우리는 이 중점에 인상을 받고 우리의 봉사가 그분의 생명의 출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앙망해야 한다 — 요 11:25, 요일 1:2.

2.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공급해 주는 생명은 그 영 안에 있고, 그 영은 우리의 영과 연합되었으며, 하나님의 생명은 연합된 영 안에 위치해 있고 이 영 안에 거하며 이 영 안에서 자란다 — 고전 15:45하, 6:17, 롬 8:4.

a. 우리가 성도들에게 생명을 공급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영을 해방해야 한다. 왜냐하면 신성한 생명이 우리의 연합된 영 안에 있기 때문이다 — 롬 7:6, 1:9.

b. 우리의 영이 해방될 수 없다면, 신성한 생명은 해방될 길이 없다 — 롬 8:10.

D. 우리가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의 재생산으로서 살고자 한다면, 생명을 공급할 역량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하여 깊은 인상을 받아야 한다 — 요일 5:11-16.

1.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얻기 원하시는 봉사는 일을 하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고 생명을 공급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 요일 5:16.
 2.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우리는 그리스도께 연결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우리 안에 있는 입지를 그리스도께 드러서 우리를 채우시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 그분의 생명과 본성과 선호와 성향이 우리의 생명과 본성과 선호와 성향이 된다 — 요일 2:27, 엡 3:16-17.
- E. 생명을 공급하는 것은 생명이 흘러나오게 하는 것이다. 우리의 봉사는 하나님께서 흘러나오셔서 다른 이들에게 신성한 생명을 공급하시도록 하는 것이다 — 요 19:34, 7:37-39.
1. 생명은 하나님의 내용이고 하나님의 흘러나움이다. 하나님의 내용은 하나님의 존재이고, 하나님의 흘러나움은 생명이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 — 엡 4:18, 계 22:1.
 2. 생명이 우리의 영에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걸사람이 처리받고 파쇄되어야 한다 — 고후 4:16, 히 4:12.
 - a. 우리의 걸사람이 파쇄되지 않는다면, 신성한 생명이 순수하게 흐를 수 없다 — 요 7:38.
 - b. 신성한 생명이 우리 안에서부터 해방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혼이 굴복되게 해야 하고, 우리의 영이 모든 일을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해야 한다. 그럴 때 주님의 생명이 흘러나올 수 있을 것이다 — 엡 3:16-17.
 3. 생명이 흘러나오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생명을 해방하는 죽음을 죽으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야 한다. 이것은 맞은 반석으로 예표되신, 맞으신 그리스도와 동일시되는 것이다 — 요 19:34, 출 17:6.
 - a. 우리가 맞은 반석이신 그리스도와 하나 될 때, 신성한 생명이 생수처럼 우리에게서 흘러 나간다 — 출 17:6, 요 7:38.
 - b. 생수가 우리 안에서부터 흘러나오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간 생명, 곧 우리의 타고난 생명이 반드시 맞아야 한다 — 고후 4:10-11, 16.
 - c. 우리가 맞으신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타고난 생명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체험할 것이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인간 생명이 맞음으로 그리스도의 신성한 생명이 생수로 흘러나왔듯이, 우리도 우리의 타고난 생명이 맞음으로 생명수의 흐름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 고후 4:10-12.
- F.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죽음 곧 음부의 문들이 교회를 공격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 마 16:18, 롬 5:17.
1. 하나님께 속한 것의 특징은 생명이고, 사탄에게 속한 것의 특징은 죽음이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은 모두 생명이고, 사탄에게서 나온 것은 모두 죽음이다 — 요 11:25, 히 2:14.
 2. 교회에 대해 사탄이 가장 크게 두려워하는 것은 교회가 사탄의 죽음의 세력에게 대항하는 것이다 — 딤후 1:10.
 3.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은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죽음뿐만 아니라 교회의 다른 지체들 안에 있는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다 — 요일 5:11-13, 16.
 4.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의 재생산으로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체험해야 하며, 영원한 생명이 흐를 수 있는 통로가 됨으로써 이 생명을 다른 이들에게 공급해야 한다 — 요 7:37-39, 빌 1:24-25.